

숲에 모여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숲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숲 친구들도 하나 둘 숲으로 모여듭니다. 숲에서 마음을 나누고, 숲에서 미래를 가꿉니다. 숲에 모여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식목일 기념행사 4월 5일

매년 식목일에 정부에 주관하는 식목행사에 전국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참가합니다. 대통령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으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7~8월 중

여름방학이 시작될 즈음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합니다. 녹색수업과 연계한 산림박물관 견학 및 숲 해설을 통한 자연관찰,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숲이 인간에게 주는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1994년부터 시작된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습니다. 2005년 서울·수도권 지역 하계수련대회는 7월 25, 26일 양일간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모자와 기념품 등을 제공합니다.

전국 푸른숲선도원 그림, 글짓기대회 9~10월 중

푸른숲의 소중함과 고마움 및 봉사활동 사례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직접 행사에 참가하는 백일장과 전국 각 학교별로 우편 접수를 하는 공모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대상 4명에게 농림부장관상을, 최우수상 8명에게 산림청장상을 수여합니다. 수상작품은 작품집을 발간하여 배포합니다.

홍릉숲교실 매달 넷째 주

매달 한 차례씩 홍릉수목원에서 숲교실을 개최합니다. 20명 내외의 푸른숲선도원들이 홍릉숲에서 숲탐방을 하며 나무와 풀, 곤충 등을 관찰하는 등 숲체험학습을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푸른숲선도원 모자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는 매달 15일까지 지도교사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전국 푸른숲선도원 산림학교 개교

2005년도부터 전국의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를 위한 산림학교를 개교합니다. 올해는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국립자연휴양림에서 2박 3일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숲 체험학습과 함께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 등 숲 관련 봉사활동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미래의 숲인재들을 양성합니다.

단체의 숲

‘단체의 숲’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의 숲’의 하나입니다. 2005년 말까지 ‘단체의 숲’을 지정받아 ‘청소년의 숲’으로 가꾸어갈 계획입니다. 푸른숲선도원들이 가꾸어 갈 ‘청소년의 숲’은 국유림 숲 관리 봉사 활동과 숲체험학습의 장으로서 푸른숲선도원들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자긍심을 고취할 것입니다.

푸른숲선도원 홈페이지

2005년 8월, 푸른숲선도원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에는 숲교육과 숲봉사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로 채워집니다. 특히 푸른숲기자단이 운영하는 페이지를 통해 산림 훼손, 숲의 변화 등 지역사회의 숲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교숲가꾸기

푸른숲선도원은 학교숲 가꾸기, 화단 가꾸기 등 소속 학교의 숲 관련 활동에 앞장섭니다. 푸른숲선도원의 학교숲 가꾸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묘목 및 나무이름 팻말 등을 제공합니다.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반

산림청의 임업연수원에서 운영하던 생태환경교원반에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반을 신설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45명의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숲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조연환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게나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푸른숲선도원 육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연 환경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푸른숲선도원은 자연 안에서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보호 철학을 통해 청소년들의 봉사 정신을 교양하고 미래를 향한 개척정신을 기른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큼을 믿습니다.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을 미래의 꿈나무로 기르고 키우는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 푸른숲선도원이 미래의 꿈을 현실로 바꾸는 열정에 힘입으길 바랍니다.

산림청장 조연환

미래의 푸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푸른 숲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를 공유하게 될 푸른숲선도원 소식지 제 1호가 나오게 되어 매우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과 IT 환경의 완벽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할지라도 사람들과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푸른 숲과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식지는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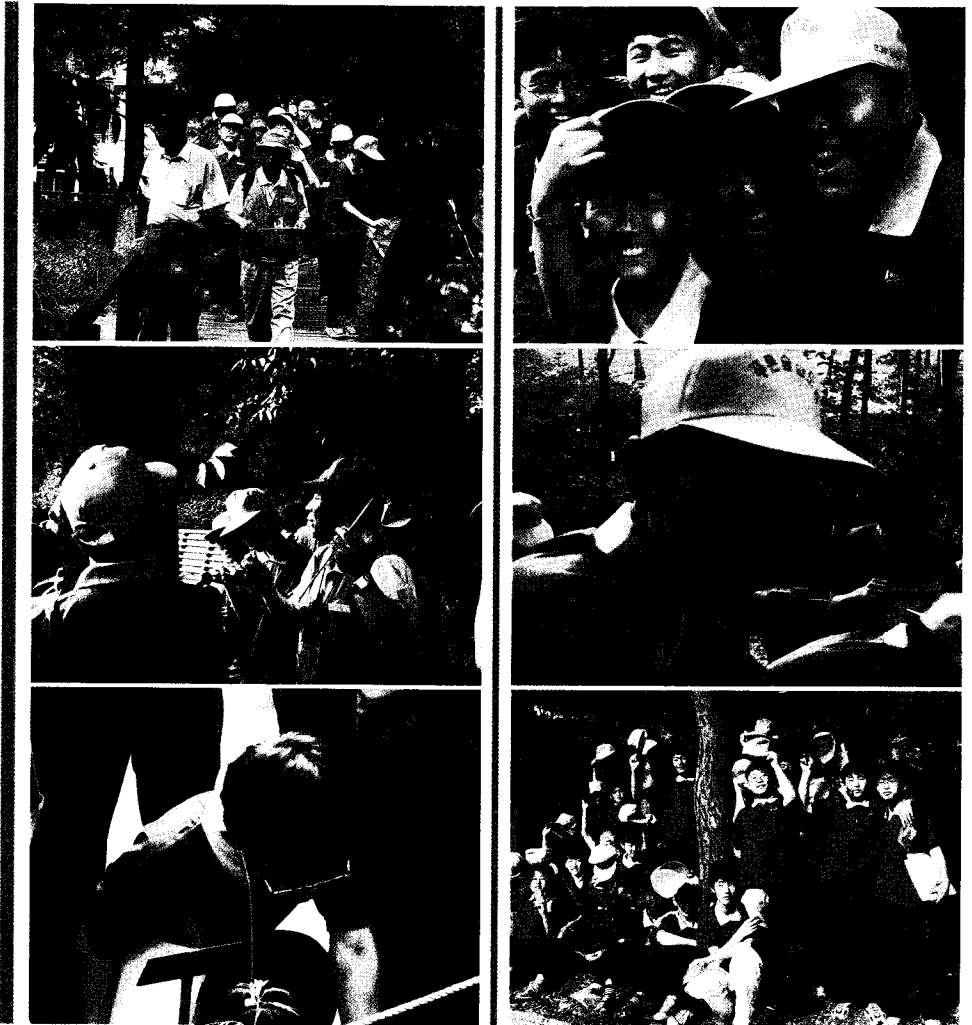
이제까지 한그루녹색회는 최일선에서 많은 미래의 환경지킴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의 푸른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 녹색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더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그루녹색회장 이은옥

숲에서 숲이 되다

동성중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이 홍릉수목원을 찾아왔습니다. 정문 앞에서 박우철 선생님과 17명의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꾸물꾸물 걱정스럽던 날씨가 때맞춰 싱그러운 아이들의 얼굴처럼 개었습니다. 오늘은 '푸른숲선도원 홍릉 숲교실'이 활짝 문을 여는 날입니다. 행복한 6월의 오후입니다.



2시간 전부터 숲교실에서 숲해설가 이재근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이재근 선생님은 정년퇴임 후 숲 전도사로 변신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늘 매고 다니는 가방 속에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복장으로 갈아입고 돌보기와 자연채취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계수나무 아래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하트 모양의 잎이 무성한 계수나무를 볼 때마다 숲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겁니다.

벗나무, 소나무, 자귀나무와 인사하고, 애기똥풀, 개망초, 거북꼬리, 질경이를 지나, 초목원에 왔습니다. 쭉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습니다. “쭉이 나오는 최초의 문헌은?” ... “삼국유사요!” “단군신화요!” 숲속에서는 공부가 더 즐겁습니다.

네모난 의자 대신 숲속 둥근 나무밑둥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숲의 소리가 들려 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 흐르는 소리... 아! 숲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새 모두들 숲이 되었습니다.

숲 아래에서 사철나무 잎으로 피리를 만들어 누가 더 소리를 잘 내나 대회를 열었습니다. 뽀뽀~ 입에서 푸른 냄새가 납니다. 숲을 지나오는 동안 몸과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놀랍고 멋진 경험입니다.

숲교실에는 칠판이 없습니다. 무거운 책도 필요없습니다. 하늘과 땅, 나무와 풀과 새와 곤충,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교재입니다. 이런 교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17명의 나무들이 입을 모읍니다.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가꿉니다

森林即生命, 育林即育人 “숲은 생명이 숨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산림현장)”고 한다.

그렇다. 숲에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또한 청소년들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녹색 수업을 통하여 생명의 근원인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산림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알고,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애호정신을 고취하고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그루녹색회에서 개발·적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다채로운 산림환경봉사 활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설렘 푸른숲선도원, 청소년 환경기자단원, Scout 대원, 우리 학교 어린이들과 가까운 산으로 숲을 찾아 현장학습을 떠날 기회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아이들의 마음은 그저 학교를 떠나서 푸른 산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들뜬다. 도심의 탁한 공기 때문에 답답하고 매스껍기까지 하던 콧속, 가슴 속에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이들을 설레게 하는가보다.

아이들을 보고 싶노라면 숲에만 가면, 아이들은 그 속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자율적으로 신나게 펼쳐 나간다.



나뭇잎을 살펴보고 기둥과 껍질을 만져보며, 땅에 옆드린 아주 작은 이름 모를 꽃잎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종알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청진기를 나무 기둥에 대고 물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신기해 하는 아이들의 합성을 듣고 있노라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와 과일 껍질들을 일반 쓰레기에서 분리하여, 유기물로 분해 가능한 것만 골라, 나무 뿌리 근방에 묻고 나뭇잎으로 덮어 주는 아이들의 작은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종이는 이면지까지 쓰면서 아껴 써야 하고, 일반 쓰레기에서 종이류를 분리하여 재활용 폐품으로 따로 모아 관리함으로써, 종이 원료인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아이들의 열띤 토론을 듣고 있노라면-

머물던 자연에는, 흔적은 남기지 않고 감사함만 남겨야 한다면, 활동하던 자리를 깔끔히 치우는 아이들의 부수함을 보고 있노라면-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가는 것이 숲을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응골찬 다짐이 배어 있는 아이들의 현장학습 소감 글을 읽고 있노라면-

저들의 작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파란 미래와 희망을 만난다.

희망 숲 사랑 활동에 우리의 밝은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앞으로도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계속할 터이다. 우리의 희망인 그들과 함께!



이름 모를 꽃잎 하나에도 관심을 보이며 종알대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청진기를 나무 기둥에 대고 물 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신기해 하는 아이들의 합성을 듣고 있노라면- 먹고 남은 음식 쓰레기와 과일 껍질들을 일반 쓰레기에서 분리하여, 유기물로 분해 가능한 것만 골라, 나무 뿌리 근방에 묻고 나뭇잎으로 덮어 주는 아이들의 작은 손놀림을 보고 있노라면- 종이...

박홍식 선생님의 들꽃 이야기(1) / 개망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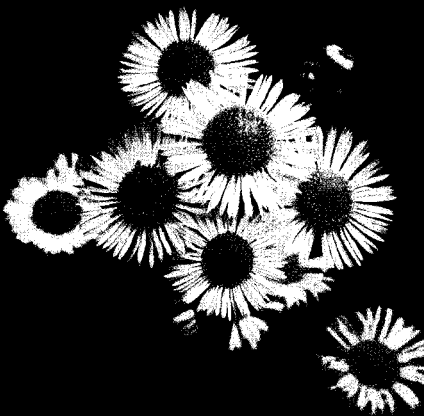
예쁘고 알미운 풀

요즈음 주위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꽃이 하나 있습니다. 하얀 꽃잎에 가운데가 노란색의 계란같이 생긴 꽃, 이름은 개망초입니다.

처음에 이 꽃을 보고 모두들 예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다가 개망초가 귀화식물이고, 주위의 다른 식물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들며, 번식력이 너무 좋아 우리 자생식물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는 설명을 듣고 나면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 뽑아 버려야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멀리 북아메리카에서 온 이 작은 풀이 우리가 황폐화시킨 땅이나 경작하지 않은 땅에 자라면서 이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일등공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쁘고도 알밋고도 고마운 풀인 셈이죠.

(박홍식 선생님은 한그루녹색회 운영위원입니다.)



꿈꾸는 친구들

상곡초등학교 김종진 선생님의 인사와 푸른숲선도원들의 6행시

공원처럼 아름답다고 해요.
우리 서울상곡초등학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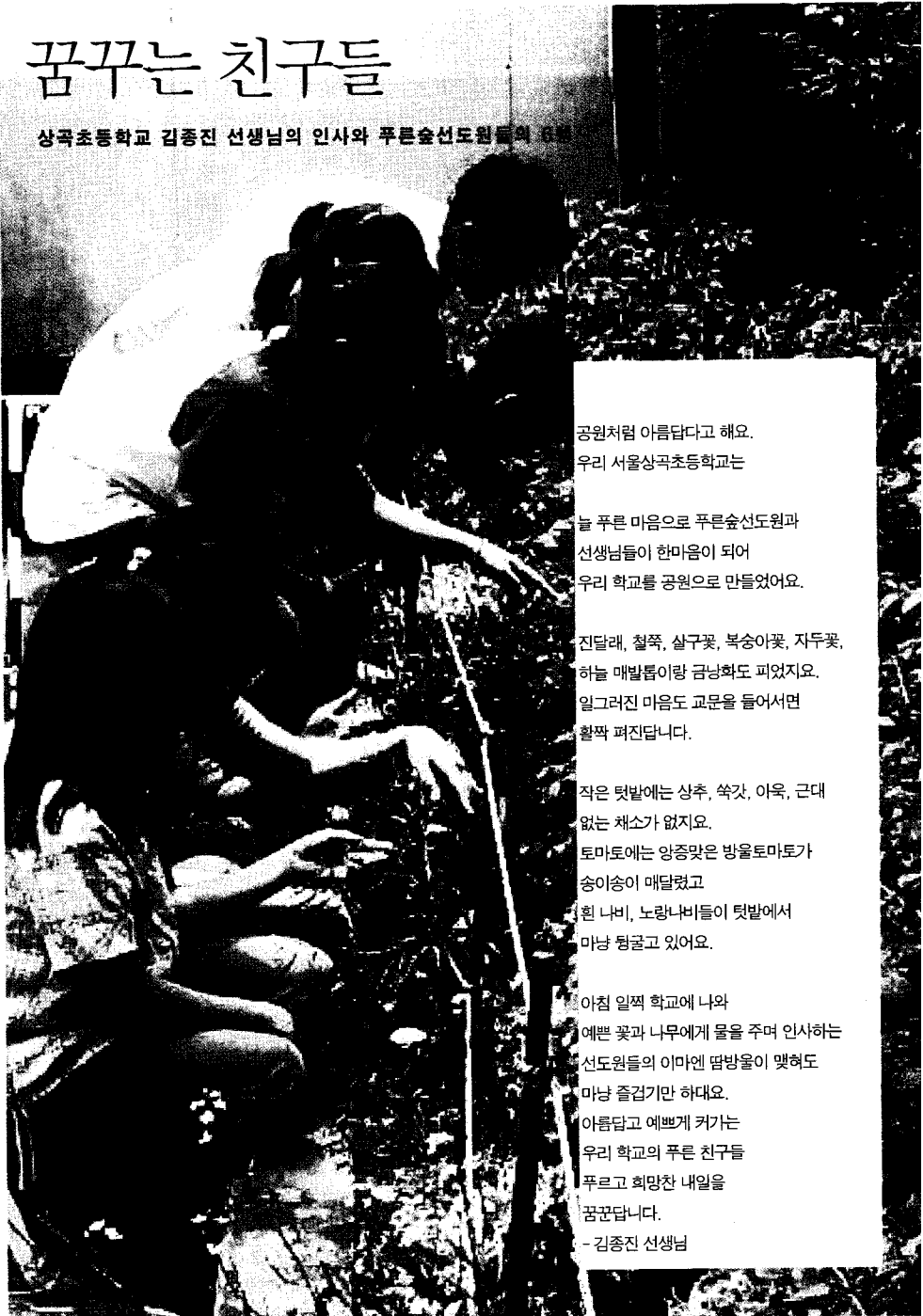
늘 푸른 마음으로 푸른숲선도원과
선생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학교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진달래, 철쭉, 살구꽃, 복숭아꽃, 자두꽃,
하늘 매발톱이랑 금낭화도 피었지요.
일그러진 마음도 교문을 들어서면
활짝 퍼진답니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 쑥갓, 아욱, 근대
없는 채소가 없지요.
토마토에는 양증맛은 방울토마토가
송이송이 매달렸고
흰 나비, 노랑나비들이 텃밭에서
마냥 똥굴고 있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예쁜 꽃과 나무에게 물을 주며 인사하는
선도원들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도
마냥 즐겁기만 하대요.
아름답고 예쁘게 키우는
우리 학교의 푸른 친구들
푸르고 희망찬 내일을
꿈꾼답니다.

- 김종진 선생님



푸른 숲 속에
은처럼 소중한
숲 속 친구들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해내는 착한 숲 속
친구들, 말쟁쟁이 내 동생
도진이도 숲에 가면
원처럼, 삐죽 뿔 하나 없는 등
굴고 착한 마음으로 변했어요.

- 김현진

푸른색에
은빛 빛을 가진
숲에는
선녀들이
도르레가 달린 줄을 타고
원을 그리며 내려온다.

- 박소연

푸른 하늘 한가운데
은하수가 있습니다.
숲속처럼 아름다운 곳
선도원들은 그런 곳을 좋아합
니다.
도라지꽃도 피어 있고
원송이도 뿔노는 곳
- 박선우

푸른 숲을
은하수보다 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기 위해
선행을 하고
도시를 가꾸는 푸른숲선도원
원. 투, 쓰리 상곡 푸른숲선도
원 파이팅!
- 이현술

푸른 내일을 꿈꾸며, 푸
른 학교를 만들자
숲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선도하여 나무를 가꾸고
도시 속에서 자연의 향기를
말을 수 있도록
원 없이 푸른 내일을 만들자
- 김우영

푸르게 푸르게
은빛이 나도록
숲을 가꾸는
선행선도원이 될 거예요.
도시의 모습을 바꾸길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 조아람

푸른 내일을 가꾸고, 푸
른 상곡을 만드는
숲을 사랑하는 상곡의 푸른숲
선도원
도시보다
원시림처럼 아름답게 우리 학
교를 가꾸자
- 박규민

푸른숲선도원들은
은이나 금이 있는
숲을 원치 않습니다. 신
선한 바람이 있고
도시(혼잡한)와는 다른
원시림처럼 고운 자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 김지훈

자랑스러운 숲봉사단, 우리는 푸른숲선도원입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산림보호에 남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구성된 미래의 '푸른숲지킴이'입니다.
- ◆ 산림청은 지난 1991년부터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숲 가꾸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산림에 대한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푸른 숲을 지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푸른숲선도원을 선발·육성하고 있습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시·도(시·군·구)청이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하며, (사)한국부 녹색회에서 전문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 푸른숲선도원은 매년 산불예방 캠페인, 식목일 기념행사, 묘목 나누어주기, 학교 푸른 숲 가꾸기, 하기수련대회, 그림·글짓기대회, 숲 체험 캠프 등을 통하여 우리의 숲을 지키고 가꾸는 실천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선발 방법

- ◆ **선발 대상** :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 중·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 ◆ **선발 기준** - 학교 생활에 모범적이고 자원봉사 정신이 강한 학생
- 숲과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연보호정신이 투철한 학생
- ◆ **선발 절차** : 전국의 시·도(시·군·구)청이 시·도(시·군·구)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 추천에 의함니다.

푸른숲선도원 주요 활동

- ◆ 산림청이 운영하는 각종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
- ◆ 푸른숲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등 각종 수련대회 참가 ◆ 푸른숲선도원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참가
- ◆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수업 프로그램 참가 ◆ 국유 휴양림에서 추진하는 산림학교 및 숲해설 프로그램 참가
- ◆ 학교 및 지역사회 숲 관련 봉사활동 참가 ◆ 산불조심 캠페인, 산지정화, 백두대간 대청소, 식목일 나무심기 참가
- ◆ 모범 푸른숲선도원 발굴, 시상 ◆ 입업연수부 생태환경교원반(직무연수), 지도교사 캠프 등 지도자 연수

2005년도 푸른숲선도원 선발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학교수	인원수
서울	84	1,439	63	1,168	11	148	10	123
부산	50	931	22	396	23	401	5	134
대구	63	815	44	577	17	205	2	33
인천	1	7	-	-	1	7	-	-
광주	40	653	32	535	4	65	4	53
대전	30	474	25	432	2	18	3	24
울산	50	870	40	656	7	144	3	70
경기	314	4,122	240	3,419	54	504	20	199
강원	232	3,628	167	2,746	47	655	18	227
충북	125	1,716	78	1,147	36	452	11	117
충남	175	1,869	134	1,531	31	246	10	92
전북	172	2,129	124	1,600	37	412	11	117
전남	244	3,797	153	2,586	64	849	27	362
경북	297	4,643	189	3,157	79	1,083	29	403
경남	216	3,118	141	2,184	56	707	19	227
제주	31	398	28	370	3	28	-	-
계	2,124	30,609	1,480	22,504	472	5,924	172	2,181